

## 동주사공 후 통정공(19세) 이하3세묘정 조성 취재기

대종회 고문 허 통(30세)

▶경남 고성군 마암면 화산리 산163(성산원날) 현황도와 묘역 내력▶



이곳 성산은 북측으로 군진골, 남측으로 원진부락, 서측으로 법수동, 동측으로 배둔으로 둘러 쌓인 해발 101.8m 높이의 낮은 산으로 축조 년대가 확실하지 아니한 성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임진왜란 당시는 아군의 방어 진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전해진다. 통상 우리 어른들께서 성산을 원날이라고 함은 원진나루를 일러 불렀나 보다.

통정공이하3세 묘정비가 세워진 이곳 화산리 산163번지는 입고성 양천허문의 세거지로 전해 내려온 마암면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400년 전 언제부터 찰방공 할아버지 묘소지 소유로 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1982년 10월 3일에 국유지로 등기된 화산리산163번지 20,231m<sup>2</sup>와 동소33번지 1,405m<sup>2</sup>를 경매취득으로 소유권 보전을 하고, 1984.10.1 과1983.1.10로 찰방공종중 재산으로 등기하였다. 구 등기에 의하면 어떤 연유인지는 알수 없으나 1969년 5월2일 통정공 찰방공의 묘지가 국유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당시 어른들께서도 경자년1960년 통정공 휘 국지의 묘소를 천묘하면서도 묘소지가 국가 소유인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여기서 좀더 덧붙여 볼 것은 이곳 성산이 송정 허문의 성소가 된 연유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옛 어른들의 토지 소유 관리 관념의 안이함 과 무관심

의 소산으로 문중 재산이나 묘소 관리상의 허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어 보인다. 400여 년을 통하여 통정공 찰방공 묘소의 벌초 성묘 시제를 모셔오면서도 화산리 산163번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 정리가 미흡하여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나 묘지가 국가 소유로 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어르신들은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싶다.

1982년 초 우연히 서울에 있던 許統이 국가사무 보조 업무를 보던 중 화산리 산163번지의 성산 묘소가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송정에 계시는 어른들에게 말씀드리고 고성군 군의원으로서 계셨던 故 重淵 許福萬이 경매에 참여토록 하여 찰방공 종중 소유로 등기하였다는 사실이 새삼 기억이 된다. 만약 그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묘지가 다른 사람에게 경매 당했다면 오늘의 이 성소가 온전히 유지 관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참으로 천만다행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종재의 여유가 생기고 여건이 조성된다면 인접하고 있는 타인 토지 3필지를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 개인적인 견해도 있다.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 굳게 믿는다.

앞으로도 동포공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종재(宗財)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현세에 머물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위선송조 행사와 종사 운영의 필수 요소인 종중재산을 모우는 일에 단 한 푼의 기여를 한 것이 없다. 오로지 우리의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각기 사가(私家)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종재를 마련해주신 선조님들의 은공을 생각해서라도 동포공 종중재산이 잘 보존 관리되었으면 한다. 현재 동포공 종중의 소유로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및 종원 개인의 명의로 된 종중재산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민법의 공동소유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내에 법적인 조치와 현실적인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6일 성산 명월에 계시던 통정공, 찰방공의 유택 곁으로 경주 김씨 할머니와 청송심씨 할머니 그리고 동포공 양위분, 진양정씨 할머니를 같은 벌안에 남향 받이로 아늑하고 포근한 묘원에 동좌 안락하실 수 있도록 요람을 단장하였다. 이 일에 통정공종회 임원들의 노고가 너무 많았다. 이 일의 시작은 동포공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택을 동포공 종회 운영상 문제로 다른 곳으로 이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안지 선정을 논의한 결과 이곳 성산으로 결정하게된 계기이다. 돌이켜 보면 2018년 정기총회 때부터 종회 총무의 재무 보고 의제가 대두되면 매년 결산상 적자 재정이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 새 중에 동포공 선영의 매각으로 종중 재정 상태를 정상화 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해 선산 벌초 성묘 모임에서도 막포 선산 매각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매수자 결정, 매각 대금등의 제반 문제가 여기저기 백가쟁명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있었다. 2020년에 들어 다시 매각대금 결정 문제와 지불 조건, 타인 묘지 철거 문제, 이안지 선정등의 핵심적인 사항의 결정이 미루어지다가 이안지 선정을 당초 송정 후안 대여섯 곳을 물색했으나 여의치 못하여 마암면 성

산으로 옮기기로 확정하고, 여러 종원님들의 성원속에 원매자인 토지개발업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고, 2020년 10월 16일에 계약하고 2021년 4월 30일에 잔금 정리하도록 계약이 성사되었던 것이다.

동포공 묘소를 매각하는 문제부터 이안지 선정 과정에서 성산 통정공 묘역으로 결정하는 일과 묘정비를 건립하는 제반 산역 업무의 처리 절차 추진 방법 등에 종회장 許忠日 총무 許萬賢 이하 임원들이 유루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완결하는 데는 許萬佑, 許統의 일관되고 총괄적인 컨트를 타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통정공이하3세묘정비 원문과 사진을 소개한다.▶

비석



비문 < 통정공이하삼세묘정비通政公以下三世墓庭碑 >

[이곳 마암면 성산(城山)은 일찍이 20세 찰방공 휘 엄(滄) 할아버지가 성산(城山) 정상의 용혈(龍穴) 언덕아래 명혈(名穴)을 잡아 아버지 19세 휘 국지(國砥)의 유택(幽宅)을 마련한 곳으로 400여년이나 지켜오는 동안 세력가의 침범도 있었으나, 잘 보존하게 된 것은 우리 후손들의 성력(誠力)이기도 하지만 두 할아버님의 음덕(蔭德) 또한 깊으니 어찌 경모(敬慕)하지 아니 하겠는가! 통정공은 입향조이신 참의공 휘 천익(天益)의 차자로 태어나 마암면 장산(章山)에 누대(累代)로 살면서 재력도 늘리고 효우와 문명이 높아져 일컬음을 얻게 되었으며, 뒷날 선조의 유훈을 지키며 의로운 일을 몸소 행하니 마침내 노년에 통정대부로 증직되었다. 찰방공은 통정공의 장자로서 기개출중하고 효우문학으로 승선유후의 뜻을 따라서 자여도(自如道) 찰방이 되었다. 동포공(東浦公) 21세 휘 규(逵)는 공의 바름과 검약함으로 가업을 닦고 덕행을 쌓아 송정이 후덕(厚德)의 마을로 칭송되었으며, 세상에 나아가 글

배우고 베풀하는 송정의 후진들이 봉황처럼 진출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공의 덕행(德行) 덕분이 아니겠는가. 2021년 정초총회에서 종사 재정 운영상의 난제해결과 장래 위선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대비책으로, 동포공(東浦公) 선영 전역을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동포공 선영 이안지 선정에, 송정 후안(後岸) 여러 곳을 물색하다 여의치 못해 이곳 마암면 성산(城山)으로 결정하고, 통정공 이하 3세 묘역을 단장하면서, 객지에 헤어져 계시는 통정공 배위, 찰방공 배위 두 할머니 묘소를 나란히 모시자는 의논이 있어, 길일을 택하고 경주김씨의 묘는 화도산亥坐에서 성산 乾坐로, 청송심씨의 묘는 곤의산亥坐에서 성산 壬坐로, 동포공의 묘와 단양양씨의 묘는 동해면 막포亥坐에서 성산 壬坐로, 동포공 배위 진양정씨의 묘는 동소 壬坐에 각위(各位) 이안하는 바이라. 이곳 성산은 통정공이하3세 할아버님 할머니가 동좌안락(同坐安樂)하시는 음조(蔭祚)와 서기(瑞氣)가 어린 요람이니, 후손들은 송조상문(崇祖尙門)의 열성으로 힘써 영원히 기릴 지니라.

孔巖宗族 超群光明 공암촌주 후예들이 제성중에 뛰어나서  
 道德文章 天下揚名 유인충효 관도문장 온세상에 떨쳤도다  
 忠靖世家 祖先趾美 애국충정 굳은절개 대대손손 아름답고  
 崇秩不靡 世德斐斐 대쪽같은 곧은정신 청백리로 이름났네  
 適值世變 墓苑造成 교류문화 예속변천 시의따라 묘원조성  
 三世散墓 移安共塋 헤어졌던 삼대배위 한곳에다 모셨도다  
 馬巖禾山 城山名穴 심리치롱 칠곡장류 지합한곳 명철이라  
 揭此顯彰 矜式吾族 통정오종 삼세공적 비에새겨 현창하네

서기 二〇二一年四月十六日

陽川許氏東州使公派固城通政公宗會長 許忠日外 宗員一同 謹豎

후손 許鳳武 謹識 文學博士 許慶武 謹書 政治學博士 許昌武 監修

고문 許貳 許統 許萬佑 許性梲 許性椐 許龍俊 許勤  
 부회장 許鳳烈 許武廷 許性鶴 許濟 총무 許萬賢  
 감역 許成 許昉 許桂 許性果 許性洛 許案 許彧]

▶ 유택 봉안과 고유제 진행▶

묘정전경사진



2021.4.16.은 辛丑年 壬辰月 甲午日로 절기상 清明 穀雨節을 끼고 있다. 오늘 이안하는 화도산 경주김씨 할머니의 묘소 개장시의 신체는 치아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곤의산 청송심씨 할머니의 유골도 잘 수습이 되었다고, 소막포 동포공 내외분의 유골도 아주 잘 보존되어 있었다는 개요(開墓) 상황을 전해 주었다. 또한 성산 진양정씨 할머니의 유골도 잘 수습되었다는 전언이 있었다. 진양정씨 할머니 묘소 개장 당일 지세와 지리의 불리함이 발견되어 찰방공 엄홍 할아버지의 유택을 미세 조정하여 봉영하였다. 또한 휘 핵(翺)의 배위 진양정씨 할머니의 유택도 지혈의 불리함이 있어 미세 조정하였다 한다. 휘 유(裕)의 배위 삭령최씨의 산소도 사초를 실시했다. 2021.4.16.에서 2021.4.19.까지 4일간의 큰 산역山役 있었다. 금번의 산역 실시에 시헌 허창무 박사의 정성과 혜지로 현장 지휘까지 감당해주셨다. 당초 이들에 해야 할 산역이 크게 늘어 났다.

통정공 과 찰방공 내외분은 생물 연대의 기록이 미상이나 누백년(累百年) 동안 두 분 내외분의 유택이 훌훌이 헤어져 있어 그 적적함과 애련한 간절함이 얼마나 많은 마디를 여한으로 남겨 두셨을가.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천금을 주고도 못할 역사를 일구어서, 이제 이 성산에서 삼대조선(三代祖先)이 한자리에서 오순도순 자리하셔서 안락하게 영면하시게 된 것은 우리 후손들의 크나큰 홍복(洪福)이 아니겠는가. 아무쪼록 삼대조선이 지기(地氣)를 받아 한 벌안에 영면하시고 후손들이 때때로 시류에 맞게 벌초 성묘하는 위선정신으로 전대미문의 가화만사성을 누리게 될 것이리라.

금번의 종사宗事는 300여년 된 고총(古塚)을 개장하고 이장하는 일에 헌신한 종원들의 노고와 성력이 후대에도 길이길이 남을 동포공 종중의 종사적宗史的 의의가 각인되는 행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성산의 묘정墓庭은 송정 양천허씨 일가의 어울림 터가 될 길지라고 믿는다

## 고유제사진



오늘은 2021년 4월 25일 일요일이다.

길일을 택하여 묘정비 고유제가 열리는 날이다.

원래 4월 16일에 천묘 산역과 고유 행사를 함께 거행함이 옳은 일이나 당일 토목공사 과다로 부득이 4월 25일 별도 택일하여 고유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오전 10시에 식전에 후암 허노진이 산신 고유를 올리고, 코로나 방역상 거리두기를 지킨 가운데 많은 종원들이 모여 본 행사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였다. 멀리서 통정공 대종손 내외와 아들, 양천허씨대종회 허동 사무총장, 동주사공중앙 종회 허광학총무님 등이 래왕해서 자리를 빛내 주었고, 참의공 종회 허성락 회장님 총무 허상덕 그리고 처사공 종중 여러 일가 어른들이 임석해 자리를 빛내주셨다.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술암 허만주의 집례와 고유문 봉독을 시작으로 대종손의 헌작으로 통정공 이하 3대조에 대한 고유와 참여자 일동이 재배하는 것으로 고유를 마치고, 이어서 죽헌 허봉무의 고유문과 묘정비 봉독 및 해설이 덧붙여 졌다. 그 자리에서 참석한 전 종원이 지켜 보는 가운데 간단한 除막식을 가졌다. 제막식 직후 허총일 종회장의 인사말과 허만현 총무의 경과 보가 있었다.

묘정 고유 행사가 끝난후에 집행부가 마련한 오찬 모임이 있었다. 간단한 기념품도 준비하여 참석한 제위께 일점씩 나누어 드렸다.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리는 일은 집행부와 현지 산역에 며칠간을 두고 애쓰신 종원의 보람이었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이 고유제가 있기까지 통정공이하3세묘정비 수갈(豎碣)에 허이 허통 허만주가 자문(諮問)하고, 비문은 허봉무가 근지(謹識)하고, 허경무가 근서(謹書)하고, 허창무가 감수(監修)하였으며 허총일 허만현이 실무(實務)하였다. 거기에 전 종원의 원력이 있었다.

특히 서울 분당 부산에서 금암허이 시은허창무 송암허통 술암허만주 이상 4분의 고문들이 노구를 이끌고 여러번의 회동이 있었고 공감대를 만들기 위

한 활발한 소통이 있었다. 특히 금암 고문님, 시헌 고문님, 술암 고문님의 건강한 모습과 열성이 너무 흐뭇해 보였다.

2021년 4월 25일 양천허씨동주사공파참의공종회통정공종중 30세 허 통이  
明記하다

### 기념사진



▶찾아오는 길- 이름하여 성산묘정(城山墓庭)이라▶

이곳 마암면 화산리 산163번지 성산묘정에는 고성 양천허씨 송정5문의 선조를 모시는 요람으로서 有諱九墓의 공영으로 모셔져 있다. 시조로부터 19세 통정공 배 경주김씨, 20세 찰방공 배 청송심씨, 21세 동포공 배 진양정씨 배 단양양씨, 23세 유인 진양정씨, 25세 유인 삭령최씨의 九墓를 벌초하고 성묘를하게 될 것이다.

이곳 성산묘정의 벌초와 성묘일은 매년 추석을 앞둔 2주전 일요일 오전 11시에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금년도 9월 5일 일요일에 많은 종원들이 참례해야 할 것이라 본다. 새로운 묘정이 단장된 결과 벌초할 면적이 더 늘어난 문제점과 그로 인한 잔디 조경상 관리의 어려움이 예견되기도 한다.

陽川許氏東州使公派固城通政公宗中 城山墓庭

